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담양

인문·자연향기 좇아 대나무숲 사이로 새봄 여행 떠나요

죽녹원 울창한 대숲 오솔길 걷고
청량한 공기 마시며 죽림욕

담양천변 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길서
눈부신 초록의 향연 즐기고

담양호 벗삼아 걷는 용마루 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

담양산 커피 맛보고 커피체리 견학
경비행기 타고 담양호 비행 이색체험

경이로운 새봄 초록의 향연은 '코로나 19'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담양 경비행기 체험과 커피농장, 담양 죽녹원(아래).

◇'코로나 19'에도 봄은 왔다="봄이 와서 꽃피는 게 아니다/ 꽃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중략) 내가 먼저 꽃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이정하 시인의 '봄을 맞이하는 자세2'를 읽다가 문득 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요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계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봄이 왔지만 여느 봄 같지 않다. 이런 때에 접한 시 한편은 '먼저 꽃피라'고, '먼저 문 열고 나서라'고 등을 떠민다. 온갖 봄꽃이 만발한 이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소박한 봄나들이마저 쉽지 않다.

누구든지 겨우내 그리워했을 색깔은 녹색일 것이다. 생명의 푸른 빛깔을 찾아 담양 죽녹원으로 향한다. 울창한 대나무 숲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싸목싸목 걸으며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해본다. 파란 하늘아래 초록 빛깔을 띤 대나무 숲에서 뭔가 생동하는 기운이 폐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 싶다.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이런 청량감은 대숲에서 발산하는 음이온(전기를 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과 산소가 혈액을 맑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심신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숲에서 즐기는 죽림욕(竹林浴)이다.

죽녹원 면적은 31만238㎡(9만3847평)로 방대하다. '운수대통길'과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사색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전역을 다 돌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적당한 곳에서 돌아서야 한다. 대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대숲을 지나는 바람을 느낀다. 대나무 숲을 몰아치다가 때론 살랑대는 바람에 색깔이 있다면 아마도 연한 녹색을 띠고 있을 것이다. 담양군은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오는 30일부터 6일간 개최할 예정이던 '제22회 담양 대나무축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죽녹원 대나무 숲은 담양천변 관방제림(官防提林), 메타세쿼이아 길로 이어진다. 담양에 왔다면 꼭 걸어봐야 한다는 '삼색(三色) 숲길'이다.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된 관방제림은 370여 년 전에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은데서 비롯됐다. 1648년(조선 인조 26년)에 담양부사 성이성이, 그리고 1854년(철종 5년)에 부사 황종림이 제방을 다시 늘려 쌓고 숲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제방에 심어진 나무들은 느티나무와 푸조나무, 팽나무 등 낙엽성 활엽수들이다. '제54번 나무' 팽나무처럼 각 나무마다 번호와 수종(樹種)을 적은 이름표가 걸려있다. 아름드리 나무들은 아무렇지 않게 제방 좌우에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어지는 메타세쿼이아 길은 2.1㎞. 총 487그루가 가로수를 이루고 있다.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은 2015년과 2018년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각각 지정됐다. '코로나 19'가 일상을 억누르는 요즘,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길은 눈부신 초록의 향연(饗宴)을 펼치고 있다.

◇담양호 벗 삼아 걷는 '용마루 길'=담양호는 영산강유역 대단위 농업개발 제1단계 사업으로 1976년 10월 완공된 농업용 댐이다. 추월산(해발 731m) 정상에서 담양호를 내려다보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龍)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한 담양군은 2015년 2월 개통된 담양호 수변 산책 둘레길에 '용마루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용마루길'은 추월산 입구 주차장 맞은편 목교에서 시작한다. 입구에서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공 폭포이다. 2015년 열린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목교를 건너 전망대에 오르면 오른쪽에 폭포, 정면에 추월산, 왼쪽에 담양호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담양호 수변을 따라 조성된 '용마루길' 길이는 총 3.9㎞. 이 가운데 나무데크 길이 2.2㎞, 흙산책길이 1.7㎞이다. 코스는 목교에서 출발해 전망대~연리지~옛 마을터~삼거리를 돌아 출발점으로 회귀한다. 왕복하려면 2~3시간 가량 소요된다.

데크길은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계단없이 완만한 경사로 만들어져 걷기에 편하다. 오른쪽에 담양호를 끼고 데크 길을 따라 걷는다. 수려한 추월산 산세와 수면에 반사돼 반짝이는 물비늘, 하늘로 두 팔을 벌린 고목들이 어우러진 봄 풍경은 서정적이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물가로 기울어져 있다.

걷기시작한지 얼마 안 돼 '연리지(連理枝) 나무'를 만났다. 갈참나무 가지가 상수리나무 몸을 뚫고 나와 두 나무가 마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깨동무 사랑나무'로 불린다. 같은 참나무과 나무이지만 서로 다른 종이 연리지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목교에서 1㎞가량 가면 갈림길이다. 산 쪽으로 '담양호 수행자의 길'이 새로 조성됐다. 안내문에는 '인생은 마치 산행과도 같다'면서 이렇게 쓰여 있다.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산행중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에 던져진 나의 존재와 삶의 여정을 통해 다시금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행자의 길'은 모두 13개의 능선으로 이뤄져 있고, 각 능선마다 스토리를 품고 있어 마치 '인생여정'(旅程)과도 같은 산행코스라고 설명돼 있다.

흙길은 나무데크 길과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워낙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세상에 살다보니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걸어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발바닥에 와 닿는 촉감마저 다르게 느껴진다. 잔잔한 호수 수면을 바라보며 숲길을 걷는 정취는 탐방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힐링'을 안겨준다.

인터넷에서 담양을 다녀간 어느 여행자의 글을 읽다가 '서정적인 담양다움'이라는 표현에 눈길이 멎었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용마루길'을 한데 묶는 키워드는 '서정'(抒情)이다. 자연과 문화를 벗 삼는 담양이 댓잎처럼 '서정적인 담양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 담양에서는 '담양산' 커피를 맛보고,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이색체험을 할 수 있다. 중앙일간지 기자출신인 임영주 대표가 고향으로 돌아와 운영하는 '담양 커피농장'에서 붉게 익은 커피체리를 견학하고 직접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에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았다.(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9-6·061-381-8879) 에어로마스터 담양항공은 2인승 레저형 경량항공기를 이용해 담양 읍내와 담양호 일원을 비행하는 체험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156-46·061-381-6230)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금성가설재
나주시 영강길43 (대덕아파트앞)
건축, 자재 임대·매입
신용본위
☎ 061)333-0708, 010-2216-8938

만福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문냉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곱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리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초대화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 (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망,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 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옷 . 양초 판매
☎ 061)334-0088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본위
각종장례용품 염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